



릴레이칼럼

단미사료 30년사 ②



이 범 섭
(주)오씨케이 회장
전 축협중앙회 부회장
전 국립농산물검검사소장

먼저 창립 30주년을 맞은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축하를 드리고,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과 같이 발전하게 된 것은 유동준 회장님과 회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제가 1983년 2월1일 농림부 축산국 사료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처음으로 당시 유동준 전무님을 통하여 협회 현황도 알게 되었는데 그 때에는 단미사료 중에서도 어분과 육골분을 생산하는 분들이 주된 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그 시절에는 가축사육두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값싼 배합사료를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료과의 제1과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시간이 배합사료 수급안정에 할애되었는데 가을 쯤 유 전무님께서 강원도 삼척에 현대화된 어분공장이 준공되니 가보자고 하여 처음으로 같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솔직히 말해 배합사료공장만 보았던 저에게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다른 어분공장을 가보지 못하여 삼척공장의 시설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몰라 자연스럽게 배합사료공장시설들과 비교되었기 때문입니다.

1985년 11월7일 양정국 식생활개선과장으로 옮길 때까지 약 2년9개월간 축산국 사료과에 근무하면서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문제가 되어 바쁘게 보냈던 것들이 생각나 흘러간 이야기로 적어봅니다.

사료관리법개정안을 만들어 관련부서에 의견조회를 하였더니 가축위생과에서 당시 동물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던 사료첨가제를 보조사료로 분류한 개정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외국의 실례를 보아도 보조사료로 분류하는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가축위생과장은 나름대로의 신념으로 “현행과 같이 두자”고 주장하여 합의를 이룰 수 없었는데 나중에 가축위생과장께서 당시 재임 중에는 현재대로 두고 더 연구검토한 후에 다시 추진하지는 의견을 제시하여와 전문가의 주장으로 받아들여 개정안에서 제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이 김성훈 장관 부임 후 재추진이 되어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보조사료로 재분류되는 것을 보고 유동준 회장께서 큰일을 하셨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1985년 초 전두환 대통령 재임 시 농림부 업무보고 후 대통령께 인사드리면서 “사료과장 이범섭입니다” 라고 하였더니 전두환 대통령께서 다른 사람에게 대한 답례 말

한국 사료산업의 흘러간 이야기들

씀과 같이 “수고했어요” 하므로 이동하려는데 “사료과장, 사료곡물수입량 좀 줄일 수 없느냐”고 하여 영접결에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당시에 외환사정이 좋지 못한 시기였는데 누군가가 외환을 많이 쓰는 분야가 원유와 곡물수입 분야라고 대통령께 보고 드린 것 같았습니다. 실무논의 끝에 공여지책을 짜 낸 것이 각 축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배합사료 원료 중 곡물 배합량을 차등적으로 줄이고 대신 강피류를 더 많이 넣는 것으로 안을 만들어 결제를 받아 배합 사료제조 관련단체, 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 2주일도 지나지 않아 청와대 농림담당 비서관이 위와 같은 공문을 시행한 일이 있는지 유무를 묻고, 들어와 설명하라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림담당비서실에 들어가 보았더니 누군지는 모르지만 농림부에서 시행한 공문서 복사본과 그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한 것을 주한미국대사관 농무관에게 주었고, 미농무관은 농림부에서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을 강제로 줄이려한다는 항의를 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료용 곡물은 주로 미국산 옥수수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시행하게 된 과정을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더 이상 말썹이 나지 않도록 하겠다 하고 나왔지요.

그 다음에는 외화자금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청와대 비서실에서 대통령지시대로 획기적인 사료곡물수입 외화절감대책을 보고하라는 연락이 와 문제의 시행공문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앞서의 농림담당비서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정책방향이 같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문제들이 일단락된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해 농림부에 대한 감사원 정기감사 시에 축산담당 감사관이 강피류를 많이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내 강피류(주로 소맥피) 생산업자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며서 다그쳤습니다.

그 당시 나는 식생활개선과장으로 옮겨가 있을 때였는데, 사료과 직원들이 그렇지 않다고 감사원 감사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자 농림부감사를 끝낸 후 나에게 감사원으로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약 12문항이 적힌 질문 자료를 주면서 답변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는데 그 질문들의 요지는 국내 강피류업자를 봐주기 위해 강피류 증량사용지시 공문을 보냈다는 것을 시인하라는 내용이어서 그렇지 않다는 답변서를 작성하자 그 감사관이 보고는 즉석에서 3가지 문항을 더 주어 답변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수입사료곡물의 국내수송 중에 도로에 떨어지는 것이 많아 외화가 낭비된다는 TV방송보도로 곡물수송전용차량이 등장하기시작 하였고, 수입 사료곡물의 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큰일이 있을 때마다 사료과에서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였으며 지금도 그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㉞